

그린투자

석탄 투자중단

삼성증권은 세계 최대 규모 아다니 광산의 석탄을 수출하는 항만시설인 호주의 석탄터미널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인수 금융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호주 시민사회가 2019년 9월 발생한 호주 대형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융사들에게 투자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즉시 호주 환경단체에 서한을 보내 해당 투자 승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중단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사는 호주 석탄터미널 투자금액 전체 614억 중 2020년 말 기준 37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수는 물론 향후 계획된 다른 투자들도 ESG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환경 영향도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그린본드 발행

삼성증권은 친환경 투자 의지를 공고히 하고 선진 증권사로서의 책임금융을 위해 2021년 2월 업계 최초로 ‘ESG 등급 인증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1,000억 규모의 해당 채권은 친환경 및 기후 변화 위기 대응 사업 분야에 투자할 목적을 인정받아 NICE신용평가로부터 녹색채권 중 가장 높은 등급인 ‘Green1’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등급은 녹색채권 적합성, 자금의 용도, 사업의 평가 및 선정절차 등 일반적인 ESG 인증보다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앞으로 삼성증권은 ESG 채권을 미국 미드 스트림 사업과 프랑스 태양광발전 사업 등과 같은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상품

삼성증권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시한 삼성 에너지 트랜지션 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글로벌 운용사인 ‘BNP Paribas 운용’의 환경 관련 전문 투자를 맡고 있는 ‘환경전략그룹’이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 한다는 것입니다. ‘BNP Paribas의 환경전략그룹’은 기후 변화, 생태계 환경 이슈에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진 운용 부서로 해당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건물 등 에너지 기술 및 효율화, 대체 운송 수단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은 다양한 환경 요소를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환경 보호 캠페인

삼성그룹은 임직원들에게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인지시키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자 여러 방향의 환경 보호 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5대 환경보호 활동 실천 항목을 정하고 텀블러, 리필 가능한 사무용품 사용 등을 다짐함으로써 임직원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친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일회용품 저감을 넘어 적극적인 재활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임직원이 수거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소재로 줄넘기, 크레용 등 교육용품으로 업사이클링해 20여 곳의 청소년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였습니다. 더 많은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전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 개인 또는 조직 단위로 도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공유하는 ‘Green Clean Challenge’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캠페인 누적 참여 인원에 따라 회사는 기부금을 적립하고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참여 활성을 유도하고 경품 등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종이 보고서 및 리포트 작성을 지양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여 용지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삼성증권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어드밴티지를 향상하고 실효성 높은 캠페인을 운영하여, 나부터 시작하는 환경 보호 문화를 사내에 확산시키겠습니다.